

# 일제강점기 조선에 비친 식민지 대만의 허실, 그리고 조선

- 『매일신보』 소재 대만시찰기를 중심으로 -

한 길 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1. 서론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주요 시찰지는 내지 ‘일본’이었다. 강제병합 이전인 1881년 조사시찰단(朝土視察團, 신사유람단)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정치가, 문학가, 관원, 종교인, 실업가, 지역 유지 등이 ‘내지(內地)’ 일본을 다녀갔다. 일제에게 조선인의 내지시찰은 친일인사들을 활용한 식민지동화 이데올로기 창출의 중요한 창구이자, 이에 가까운 이들을 회유하고 포섭하여 자발적인 협력의 길로 인도시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시찰을 통한 동화정책은 1911년 압록강철교의 완공 이후 북행열차가 개통되면서 대륙으로 확장된다. 1911년 11월 경성~만주 안동(安東) 간의 운행을 시작으로 12월 장춘(長春)을 운행하는 직통 급행

주제어: 대만, 문화통치, 시찰, 내지연장주의, 동화

Taiwan, Cultural Governance, inspection, Mainland Extension Policy, assimilation

열차, 이어서 1912년 부산~봉천(奉天) 간의 급행열차가 운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sup>1)</sup> 이후 일제는 1910년대 중반 ‘(남북)만주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찰단을 조직하여 ‘대련·봉천·여순·합이빈’ 등의 만주 일대를 시찰케 했는데, 이를 통해 전통적인 만주인식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그 경계를 일본제국의 영역으로 합일시키려 하였다. 이들은 시찰단을 통해 ‘만주담론’을 확산하여 중국의 몰락과 일본 제국의 위용을 한껏 드높이는 한편 이곳을 기회의 땅으로 부각시켜 많은 조선인들의 이주를 유인하고 있었다.<sup>2)</sup> 그리고 1920년대, 조선인의 시찰지 중 한 곳으로 일제 최초의 식민지 ‘대만’이 등장하게 된다.<sup>3)</sup>

하지만 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 대만에 관한 조선인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고 심층적 정보도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대만은 변방의 비문명적 풍습이 가득한 섬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sup>4)</sup> 이러한

- 1) 정재정(1999), 『일체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출판부, 387-389쪽.
- 2) 이러한 일제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매일신보』 사설의 일부를 옮겨본다. 「사설: 만주시찰단의 주지」, 1917.3.9, 1면. “만주는 아제국의 세력권 내에 재(在)호는 지오 만주는 아제국(我帝國)의 일부영토 될 만호 자격을 유호는 지오, 만주는 아제국의 대륙발전상에 다대한 공헌력을 유호는 지오 만주는 아제국 국민의 무진호 신장을 준비한 지오.(중략) 만주시찰단의 모집은 아(我)조선인장래의 무궁한 행복을 재래(齎來)호는 자니...”
- 3)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대만은 1895년 일제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중화문명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다. 일제는 청일전쟁 승리 후 대만을 식민지로 접수했지만 식민경영을 위한 준비는 거의 미비한 상태였기에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대만 접수 후 많은 재정적 투자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대만을 차라리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은 대만 할양 7년 뒤인 1902년 8월에서야 비로서 중앙집권체제 확립을 선포하게 된다(손준식(2002),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아시아문화』 18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2쪽).
- 4) 대만에 대한 정보는 조선 후기부터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양적으로는 정조(正祖)대에 가장 많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교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대만’이란 이름은 『숙종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1686년 7월 26일자 기사에는 한인(漢人) 유위(游魏)라는 상인이 전남 진도 땅에 표류한 일을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조선에서의 대만 이미지와 더불어 외지인식에 관한 연구’,<sup>7)</sup> ‘대만과 조선(만주 포함)의 작가 혹은 지식인들의 혼종적 정체성을 담은 작품 분석 및 상호 교류와 영향에 관한 연구’,<sup>8)</sup> ‘동아시아 시각에서 바라본 대만의 역사와 한국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연구’ 등은 가히 주목된다 하겠다.<sup>9)</sup> 본 연구는 위의 연구들을 참고로, 문화통치기 전후로 작성된 대만시찰기에 주목하며 시찰단의 인적구성과 시찰내용, 규모 등에 관한 면모를 밝히면서 특히 시찰과 일제의 식민동화 정책(이데올로기)의 연관성에 주목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문화통치기를 전후로 『매일신보』에 기재된 대만시찰기를 분석함에, 식민통치 당국자인 총독부 관료들이 작성한 시찰기와 친일 조선인이 바라본 ‘식민지 대만에 대한 관점’의 유사성과 상반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대만

- 
- 7) 일제강점기 대만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1920~194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수록된 기사들을 분석한 손준식(2007, 2010)의 연구가 주목된다(『식민지 조선의 대만 인식 -『조선일보』(1920-1940) 기사를 중심으로』, 『중국현대사연구』 34집, 중국근현대사학회; 『『동아일보』(1920-1940) 기사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대만 인식』, 『중국학보』 61집, 한국중국학회). 손준식은 위 논문을 통해 『조선일보』는 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동아일보』는 자치주의적 관점에서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매일신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정혜경(2012) (『식민지 시기 조선 사회의 외지 인식』, 『한일민족문제연구』 22권, 한일민족문제학회)은 대만과 남양군도에 대한 두 신문의 기사를 분석하면서 대만과 남양군도 기사를 정리하여 목록으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면모를 드러냈으며 대만시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 8) 박재우(2007), 『일제시기 한국과 대만 문화 상호작용의 또 다른 공간』, 『외국문학연구』 25집, 한국외국어대학 외국문학연구소; 김계자(2011), 『근대 일본문단과 식민지의 문화자 : 김사량과 룡영종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연구』 22집, 아세아문화연구소; 최말순(2011), 『1930년대 대만문학 맥락 속의 장허주』, 『사이(SAI)』 11집,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신지영(2011, 2012), 『‘대동아 문화자 대회’라는 문법, 그 변형과 잔여들』, 『한국문학연구』 40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식민성과 제국의 네트워크, 정념의 공동체』, 『석당논총』 53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 9) 최근 출간된 최원식(외, 2012) 『대만을 읽는 눈: 한국-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창비)은 대만과 한국의 교류사적 관점에서 문학, 사학, 예술 등 각 분야 한국·대만학자들의 논문 15편을 실고 있는데 동아시아적 시각에서의 비교적 관점이 돋보인다.

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모습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고 겹치는지 살펴보려 한다. 일본 제국주의 확장을 위해 조선통치에 헌신하고 있던 식민경영의 주체, 그리고 ‘일제에 대한 동경과 조선인으로서의 내적 결핍’을 안은 채 일제에 투신한 협력자들이 바라보는 관점들 사이에 드러난 ‘교착과 상이의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제국 주체와 주체에 대한 욕망을 가진 협력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식민지 대만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만주-일본’ 중심의 기존 담론의 외연을 확장해보고 나아가 미약하게나마 대만에 투영된 식민지 조선(인)의 일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조선총독부 관료의 대만체험:

### 일제 통치 20년, 미완성 식민지 대만

식민지 조선에서 대만에 대한 소식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대만통치가 안정을 찾아가던 1910년 후반부터였다.<sup>10)</sup> 하여 조선총독부 직원의 대만 시찰이 발견되는 시기도 바로 이 시점인데, 특히 1916년 대만통치 20년을 기념하여 열린 박람회에는 조선총독부가 일제의 대만 통치의 경험을 주목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는 대만박람회에 학무국장, 농무국장, 전매과장, 조리과장 등

10) 이 시기는 일본 당국 스스로 대만 통치 20년간의 경험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려던 때였고 대만 내부적으로도 ‘항일에서 자치’로의 변모를 꾀하던 시기였다, 특히 1915년 한족 중심의 최후 무장투쟁으로 불리는 서래암(西來庵) 사건 이후 비로소 대만통치가 안정권을 넘어 모범적으로 인식되고 시기였다. ‘서래암(西來庵)사건’ 이후 대만총독부는 점진적 동화를 위해 대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무방침주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일제의 남진정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주차군사령관(朝鮮駐紮軍司令官)출신 6대총독 안동정미(安東貞美, 1853~1932)가 부임했는데, 이후 대만은 점차 안정된 면모를 보였다(원류태만관(遠流台灣館)(편, 2000), 『대만사소사전(台灣史小事典)』, 대북(台北: 원류출판공사(遠流出版公司), 114-115쪽).

을 파견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가 조선 통치에 있어서 대만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더불어 산업 및 재정 확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sup>11)</sup> 두 총독부의 이러한 교류사는 ‘내지연장주의’라는 체제를 준비하려 했던 당국의 방침에 따라 식민지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한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이 시기에 이르면 대만에서 조선으로의 시찰 또한 발견되는데 주로 대만총독부나 기타 행정 관료들에 의해 이뤄졌다.<sup>12)</sup> 조선에 있어서 이들의 시찰이 내지에서 온 시찰단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점에 기인해서 인지, 이들의 시찰은 단신으로 짧게 언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매일신보』에 보도된 7차례의 시찰 가운데 상세한 기사로 보도된 것은 1918년 대남(臺南)여자공학교장 길진방희(吉津邦喜)<sup>13)</sup>를 단장으로 각지의 교

11) 『매일신보』에 따르면 1주간의 일정으로 행사 참석을 겸해 대만시찰을 떠난 총독부 관료는 학무국장 관옥정삼랑(關屋貞三郎), 농무과장 청목계삼(靑木戒三), 전매과장 평정삼남(平井三男)이며 임시토지조사국 조리과장 공동장평(工藤壯平) 역시 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이들의 대만 행은 대만총독부 기관지 『대만일일신보(臺灣日日新報)』에 “조선의 내대자(朝鮮の來臺者)”(1916.04.09, 7면), “조선내대자(朝鮮來臺者)”(1916.04.10, 7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단신처리 되어 소개되었다.

12) 『매일신보』 기록에 의하면, 대만에서의 조선시찰(단)은 대만총독부 주최로 조직되었고 대부분이 교육 및 행정관료였으며 산업 설비와 관련한 인물들도 있었다. 『매일신보』에 따르면 문화통치기 조선에 대한 대만총독부 일본인 시찰단은 교육관리들의 학사시찰이 3회, 대만 경찰들의 정세시찰이 2회, 대만 산업기사 및 지방 과실상(果實商)의 산업시찰이 2회로 조사되었다. 교육시찰은 대만공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대만학사시찰단의 시찰(1918.06.30, 4면 · 1918.07.04, 3면), 대만 아후청(臺灣阿猴廳) 학무국장 등의 시찰(1920. 07.11, 04면), 대만 조주군수(潮州郡守)의 시찰(1926.06.27, 6면) 등이 그것이다. 산업시찰은 축산상황 시찰을 위해 찾아온 아후청 기사(阿喉廳技師)의 시찰(1913.09.18, 1면), 고웅(高雄) 지역의 과실상만선 시찰단의 시찰(1925.09.22, 1면)이 그것이다. 끝으로 대만경찰의 조선 시찰은 대만총독부 경무국에서 지방주청경무국간부 20여 명의 시찰(1926.09.15, 3면), 대만지방경찰간부들의 시찰이 있었다(1930.10.27, 1면).

13) 길진방희(吉津邦喜): 『대만총독부직원록』에 의하면 그는 1902년~1910년까지宜蘭청나동공학교(宜蘭廳羅東公學校) 교유(敎諭)로 1911년에는 대남청봉상공학교

장들이 참여한 ‘대만학사시찰단’ 단 1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기사는 이들의 학사시찰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남작을 받은 친일파 조동윤(趙東潤, 1871~1923)의 집을 방문하여 큰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었다.<sup>14)</sup> 대만총독부의 조선시찰에 대한 『매일신보』의 기사는 이들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관심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반면 조선총독부에서의 대만시찰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916년 4월 대만총독부시정 20년을 기념하며 열린 ‘대만권업공진회’ 참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만총독부는 시정 20년을 맞아 식민 경영의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대만에 대한 투자와 무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박람회 개최했다. 당시 대만은 1915년 대만총독부 신청사의 완성으로 그 위용을 더욱 높게 갖추었고 각종 식산사업의 현대화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다. 일제는 이 박람회를 앞두고 대만 통치는 ‘도둑떼 같은 항일세력 소탕, 야만의 원주민 관리, 위생 교통의 발전과 교육의 보급 등 대만은 일본 최초의 식민지로서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통치효과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었다.<sup>15)</sup>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모범적으로 성공한 식민지’라 자찬한 대만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

(臺南廳鳳山公學校) 교유를 역임했다. 이후 1912년~1920년까지 대남주타이난여자공학교(臺南州臺南女子公學校)를 교유를, 1921~1926년까지는 훈도(訓導)로 재직했다. 이상의 『대만총독부직원록』은 타이완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대만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누리집을 참조하였다(臺灣總督府職員錄系統, <http://who.ith.sinica.edu.tw/mpView.action>, 2013.04.11).

- 14) 『매일신보』, 「귀족의 가정을 견학, 대만에서 온 고육시찰단일행 도남작의 가정을 구경하였다」, 1918.7.4, 3면. 기사에 의하면 이들은 조선의 학교를 시찰한 이후 조동윤의 집을 방문했는데 조동윤은 자신의 사랑, 부엌은 물론 안방까지 이들에게 공개하며 환대했고, 일행은 이에 매우 흡족해 했다고 전한다. “그 일행에게는 남작 더를 견학 할때에 가장 곱흔 상을 엮은 듯 흐더라.”
- 15) 하세봉(2004), 「식민지권력의 두 가지 얼굴」, 『지역사와 경계』 51집, 경남사학회, 111-143쪽.

과시하기 위한 이 행사에 일본 황족을 대표해서 한원궁(閑院宮)과 그 비(妃)가 참석하는 등 일본 내의 관심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또 우호적이었다.<sup>16)</sup> 중요한 것은 이 박람회를 계기로 부정기적이고 간헐적이지만 식민통치와 관련하여 두 총독부 관료들 간의 교류가 시작되는 양상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1916년 4월 16일, 이 행사 참석을 겸해 ‘식민지행정사무시찰’을 목적으로 대만을 간 총독부 관료들을 보면 교육과 식산 등 식민경영과 긴밀한 관련 분야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대만시찰을 통한 이들의 경험은 ‘시찰기’라는 형식으로 『매일신보』에 공개되는데 각 분야의 관료들인 만큼 전문성이 돋보이며 일방적으로 대만을 찬양하기 보다는 그 이면을 분석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의 글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대만에 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를 분석하여 식민경영에 참고할 만한 점들을 내세워 경영 주체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면모가 짙다 하겠다. 대만과 조선의 경험을 서로 대조하여 더 완벽한 ‘동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먼저 대만총독부에서 근무했던 관옥정삼랑(關屋貞三郎) 당시 학무국장이 바라본 대만의 근대적 성과와 언어동화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자.<sup>17)</sup>

16) 말광훈야(末光欣也)(2012), 유문보(劉文甫)외(역), 『일본통치시대적대만(日本統治時代の臺灣)』, 대북(台北: 치량출판사유한공사(致良出版社有限公司), 2012. 209-217쪽.

17) 관옥정삼랑(關屋貞三郎, 1875-1950): 도치기현(栃木縣) 출신으로 동경제대를 졸업했다. 1901년 대만총독부관방참사실참사관을 시작으로 1905년 대만총독부평의회 평의회원(臺灣總督府評議會評議員)으로 활동한 후 1910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으로서 임명된 관료로 대만의 사정과 조선의 사정에 대해 비교적 밝은 인물로 추정된다. 그는 시찰 이후 조선총독부 임시직원연수회(1916.05.20, 02면) 경성고등여학교에서 (조선교육연구회 주최) ‘대만시찰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1916.05.28, 02면)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매일신보』 및 아사히신문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판 일본인명대사전(デジタル版 日本人名大辭典) 검색 서비스인 Kotobank를 참조. <http://kotobank.jp>, 2013.4.11.).

“여는 십년만에 대만을 견(見)하얏는디 당시와 비교하면 각지가 공(共)히 저대히 면목을 개하얏스니 예컨딩 지방의 일소시가(一小市街)도 시구는 정미히 개정디었고 위생적 시설과 여흠은 특히 완비하야 취중(就中)에는 내지의 도회에서도 도저히 급급(及及) 못홀자가 유하고 차우기경비(且又其經費) 본 총히 시장급도축(市場及屠畜)의 양세(兩稅)로 충당하니 차는 최(最)히 참고홀만한 처라. 조선과 여흠도 하시(何時)던지 실현의 기(期)가 무흠 불가하겟고 기타제반의 시설도 역차(亦此)에 준하여 전차진전(漸次進展)하는 중에 재흠은 물론이오 방(方) 토비와 여흠은 작년까지도 상부종식(尙不終熄)하엿다 하야 불패를 창(唱)하는 인이 유하엿스나 도인(島人)과 내지인을 물론하고 일반의 행복을 증진하는 중에 재흠은 쟁키 불가하 사실이라.”<sup>18)</sup> (밑줄 필자)

관옥 국장은 대만의 근대적 설비가 자신이 머물렀던 십년 전에 비해 월등히 성장했다는 평가로 일제의 식민성과를 찬하면서 이는 ‘내지 일본에서도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지경’이며 대만의 부유함 또한 감히 조선이 비할 바 못된다고 언급했다. 가장 참고할 점으로 산업 시설의 경비를 대만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sup>19)</sup> 이를 의식한 국장은 조선 역시 대만처럼 서둘러 재정독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한 것

18) 『매일신보』, 「대만시찰의 소감」, 1916.05.21, 2면. 기사는 “대만관업진흥회와 병(旃)히 식민지시정상황(市政狀況)을 시찰하기 위하야 대만에 도왕하얏던 관옥학부 국장(關屋學務局長)은 좌와 여(如)히 어(語)하더라”는 소개로 시작된다.

19) 당시 일본 당국은 점진적으로 대만에 대한 지원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대만총독부의 재정 독립을 이끌어 왔는데, 사실 식민지 대만 경영 초기에는 극심한 재정적 부담으로 대만을 중국이나 열강에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대만총독부는 ‘일제의 첫 식민지배’에 걸맞은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대만의 ‘세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성공, 1906년 재정독립을 달성하게 된다. 일제는 ‘대만의 자연적 조건’을 단시간에 자본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대만총독부 관료들의 기업가 정신과 재정 독립 이전 본국의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문명기(2009), 「대만·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44집, 중국근현대사학회, 91-113쪽).

으로 보인다. 즉 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면서도 수탈경제체제 건설에 연착륙하여 재정독립에 이른 대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 비해 현재 조선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토비(土匪)마저 종식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평가로 부진한 면모를 대조시키며 식민통치의 가시적 성과 면에서 조선은 분명 대만에 미치지 못하며 대만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sup>20)</sup> 그리고 대만과 일본 그리고 조선에서의 노력은 조선을 포함한 대만(島人)과 일본(內地)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는 언급으로 일본 통치의 ‘보편성·당위성’과 함께 ‘공동체적 동일성’의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는 일방적으로 ‘학(學)대만’을 주장하지 않았다. 모범적 식민지라 평가받는 대만 역시 완벽한 내지가 아닌, 아직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식민지라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대만에서의 경험을 조선에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일종의 ‘선택과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글에서 국장은 일본어 보급문제와 관하여 조선과 대만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우기중(又其中)에는 국어의 보급에 취(就)하여야 차를 조선과 비교하여 성적의 상(上)키로 난(難)함을 책(策)하는 자 유(有)하나 양(樣)을 일(一)樣으로 취급(取給)하고져(且) 흠(欠)은 잔(欠)혹(欠)히 불가(不)한(可) 사실(事實)이라 … 조선과 대만과는 기간(期間)에 대(對)히 사정(事情)이 이(異)하고 특히 본도인(本島人)은 내

20) 하관조약 이후 약 8년간 3만 명이 넘는 대만인이 살육되었을 만큼 식민지 통치경험과 준비가 부족했던 일본은 초기 대만의 격렬한 저항에 다소 고전했지만 점진적인 동화와 대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통치주의’를 통해 1900년 전후로 식민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행정, 교육 치안 등의 식민경영의 기초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해갔다. 산업이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만 고유의 풍속이 강제적인 파괴를 입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동화되도록 노력했는데, 1910년에는 변발이나 전족과 같은 구습, 한문서방 같은 것들이 몰락하는 등 ‘특별통치주의’는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었다(손준식(2002),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아시아문화』 18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9-25쪽).

지인과 언어의 계통이 이해야 조선과 여히 국어와 접근치 못하고 차(且) 선내(鮮內)에는 다수의 내지인이 재왕(在住)하는 고로 선인은 차에 접촉하는 기회가 다하나 대만에는 내지인이 소홀뿐안이라 기 거리(其距離)에 재해야도 불■한 원근이 유하니 국어보급기관의 완부한 고사하고 차등의 점으로부터 고희 시는 가령양자가 동양(同樣)의 노력을 불(拂)홀지라도 기성적(其成績)에 다소의 지속은 불면 홀 것은 사세에 사연(使然)함이라 하겠도다.”

대만은 분명 일제가 최초로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일본어 교육의 실험 장소였고, 그리고 이러한 대만에서의 경험은 조선에서의 일본어 교육에 상당부분 참고 되었다. 일본어 교육을 통해 ‘식민지 사람들이 언어를 익히면 이후 일본의 국민의식이 확립되어 결국 이들도 진정한 일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지속적으로 반영된 것이었다.<sup>21)</sup> 관옥 국장은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각 지역의 언어·사회적 환경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즉 언어의 계통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의 접촉 기회 등과 같은 부차적 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내세웠다.<sup>22)</sup> 사

21) 일본어를 ‘정신의 혈액’으로 이상화하여 식민초기 교육정책을 주도한 이는 대만총독부 초대 학무부장 이택수이(伊澤修二, 1851-1917)로, 그의 기본 구상은 내·외부의 의구심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의 이상은 종전까지 대만과 조선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논문을 참조할 것(정준영(2011), 『식민지 교육정책의 원점』, 『정신문화연구』, 34권 2호, 정신문화연구원, 153-184쪽).

22) 사실 일본어 보급문제는 일제 당국과 총독부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경주한 ‘동화정책’의 근간이었는데, 식민지 백성에게도 일본인과 동일한 교육적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진정한 일본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나는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논란이었다. 참고로 총동원시기에 조사된 일본어 보급률에 따르면, 1943년에 이르면 대만은 일본어 보급률이 62%에 달했으나 조선은 겨우 22%에 불과했다. 물론 대만이 조선보다 15년 앞서 식민지가 되었지만, 언어의 유사성을 따져봤을 때 이는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족적 정서와 동화와 연관하여 고려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해 보인다(최유리(1997),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59-160쪽).

실 일제의 일본어 보급 노력은 상당하였으나 그 실질적 성과는 당국의 기대 이하였다. 다족군·다언어적 환경을 가진 타이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sup>23)</sup> 국장은 대만의 언어동화 양상에 주목하면서 수치상의 보급만을 근거로 조선의 일어 보급이 부진하다 할 수 없으며, 보다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생활화되는 언어 환경 조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리과장(調理課長) 공등장평(工藤壯平)<sup>24)</sup>의 시찰기에도 동화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관점을 찾을 수 있다. ‘식민지 시정 시찰’을 위해 떠난 그 역시 대만의 식민성과를 긍정하는 태도에서 대만의 식민지 전후 상황을 비교하였다.<sup>25)</sup> 특히 대만의 열악한 기후로

23) 대만총독부는 1914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국어연습회를 개최, 우수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15년부터는 각지에서 국어보급회 결성을 조직적으로 장려하는 등 일어 학습 열기를 고조시켜가는 조치로 1920년에는 일어를 듣고 말할 줄 아는 타이완 수가 전년에 비해 곱절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인구에 3%도 되지 않은 수치였다고 한다(손준식(2007), 『동화와 개화의 상흔: 식민지 타이완의 일어』, 『식민주의와 언어』, 아름나루, 15-28쪽).

24) 공등장평(工藤壯平, 1880-1957)은 오카야마현(岡山縣) 출신으로 동경제대를 졸업했다. 1910년 조선총독부 사무관, 회계국 영선과장 대리를 시작으로 13년 토지조사국 서기관, 15년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리과장(調理課長), 18년 총독부 관방총무국 통계과장 겸 국세조사과장과 총무과장으로 1919년까지 근무했다(『조선총독부급속관서직원록』, 『매일신보』 및 아사히신문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판 일본인명대사전(デジタル版日本人名大辭典) 검색서비스인 Kotobank를 참조. <http://kotobank.jp>, 2013.4.11.).

25) 『매일신보』, 『대만 부원과 산업』, 1916.05.17, 1면. “대만은 일청전쟁의 결과 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영토가 되었으나 지나에 재하야 차의 통치가 태히 불가능한 상태에 재하얏슴으로 영토후도 토비의 붕기가 부절하고 또 생변이라하는 자가 유희야 인간의 수(首)를 육하야 무고한 사인으로 기참화(其慘禍)를 몽하는 자의 다흔 시는 일천명 여하는 년이 유희야 기후불순하야 서기(暑氣)가 엄후홀 쏴아니라 영대당시(領臺當時)부터 인속하야 악성루마질사(惡性癩麻瘰斯), 흑사병(黑死病), 질부사(窒扶斯), 대만방주배(臺灣坊主杯)의 창궐을 극하얏더니 과거이십년간에 대한 당국의 고심경영에 의하여 작금에는 생변의 해도 대히 감소하고 토비도 역(亦) 전부 섬멸하야스며 제종의 악질도 태(殆)히 지(地)를 불(拂)흠에 지(地)였더라.” 본문의 루마질

인한 질병의 문제, 항일운동, 그리고 원주민들의 야만성 등을 언급하며 식민 이후의 대만의 변화를 환기시키고 있다. 통치 전 이러한 전근대적 문제들이 중첩된 대만은, 일제 당국 20년간의 ‘고심경영’을 통해 상당한 문명적 진보를 획득했으며 이는 대만에게 일종의 ‘시혜’였음을 보여준다. 토비에 비견할 정도로 무도한, 통제가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대만의 생변이 문명의 혜택을 입으며 상당수 동화되었고 항일운동 역시 감소세였으며 일본의 의료기술의 전래로 질병도 다소간 해소되는 등 일제의 노력으로 대만은 이제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진입하게 되었다며 식민경영의 성과를 언급했다. 더불어 “지방의 사인의 생활상을 견학해보아도 근면해야 여유가 유가 하고 가옥 우는 부락의 정돈은 양(樣)은 도저히 조선의 급할 바 안이라”<sup>26)</sup>고 평가하며 조선의 후진성과 문명성의 결핍을 언급했다. 그에게 있어 대만 식민경영의 성과는 분명 일제의 큰 성과이면서 진보를 가져온 시혜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역시 대만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자찬하는데 머문 것은 아니다. 그 또한 대만의 불완전한 식민경영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핵심은 언어상의 동화라기보다 대만인과 일본인의 관계에서의 ‘생활상 동화’에 대한 것이었다.

“유오인여객(唯吾人旅客)이 기이히 감함은 신정 시행 이래 이십년을 열(闕)은 토지로는 지방재주(地方在住)의 내지인이 심한(甚罕)은 일사(一事)이니 차는 기후의 관계 우(又)는 악질창궤를 극하는 등으로 인하여 내지의 제 인사에 대하여는 호인상을 여(與)치 못함에 의(擬)하였습이라 하였으나 십이청급각지청(十二廳及各支廳) 우는 대회사재지이외(大會社所在地以外)에 재하여야는 내지인의 가옥을 견학기 심한하니 여사(如斯)함은 식민지로 개발상 다소 고려를 요하는 바 유 하였고 현(現)에 풍속에 대하여도 우는 언어에 재하여야는 사인

사는 풍습성(風溼性) 관절염인 루마티스이고, 질부사는 장티푸스며, ‘대만방주배(臺灣坊主杯)’는 대만 풍토병의 일종으로 추정되나 분명하진 않다.

26) 위와 같음.

은 의연히 사인이오 내지인은 완전 개별의 생활을 영호야 양자의 친화적 생활을 견치 못 흠은 공컨디 피지(彼地)를 견문한 인사의 제 일히 기이히 감홀 바 이리라.”(밑줄은 필자 강조)<sup>27)</sup>

공동 과장의 주장에서도 관옥 국장과 겹치는 지점이 발견되는데 식민지 대만에도 여전히 불완전한 면모가 있으며 양 민족 간의 ‘동화적 차원’에서 보완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대만인(本島人)과 내지인의 거주지에 드러난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지적했다. 지방의 경우 기후의 관계나 약질 등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식민 경영이 20년이나 흘렀음에도 내지인들끼리 특정 공간에서 밀집 거주하는 현상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은 거주지의 완벽한 구분은 언어나 풍속의 ‘비(非)일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동화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환원된다. 곧 그의 시찰에서도 역시 ‘완전한 식민지적 근대와 동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큰 관심이 경주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1906년 대만총독부의 재정자립 이후 대만의 경제는 일본제국의 확장을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고 있었다. 대만총독부는 대만이 가진 세원의 잠재력 극대화화 안정된 재정 유지를 위해 농상공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입했고 본국정부의 재정적·정치적 지원 역시 비교적 일관적이었는데 특히 사탕수수를 중심으로 하는 전매사업에 있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sup>28)</sup> 하지만 소규모의 가정경작식 생산구조를 가진 대만농가의 특성으로 일본 제당자본들이 대규모 농장을 건설할 수 없었기에 대만농가들은 일제 제당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일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sup>29)</sup> 청목 국장<sup>30)</sup>은 대만의 상업은 비교적

27) 위와 같음.

28) 문명기(2009), 「대만·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44집, 중국근현대사협회, 91-113쪽.

발달되어 있으나 소규모의 거래와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특성으로 일본인의 경제적 이익이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sup>31)</sup> 이는 곧 대만인의 경제력을 총독부가 보다 확실히 지배해야 함을 언급함과 동시에 조선 또한 이를 경계하여 식민지 경제를 철저히 일제에 종속시켜야 함을 우회적으로 내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sup>32)</sup> 즉 식민지 백성들의 이익은 제국의 이익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나아가 식민지의 이익은 제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 29)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쌀 재배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사탕수수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낮은 사탕수수 가격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던 대만총독부는 이를 상당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윽고 일제 제당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쌀 수출을 독점하면서 쌀 가격을 낮추어 사탕수수에 관한 가격도 떨어뜨리는 정책을 시행한다. 즉 쌀 생산과 수매 가격을 통제해 더 이상 대만 농민이 사탕수수의 생산 확대와 수출증대로 인한 이윤을 나누어 가질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를 ‘미당상곡(米糖相剋)’이라고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의 번역서를 참조할 것(커즈밍(2008), 문명기(역), 『식민지 시대 대만은 발전했는가: 미당상곡 1895-1945』, 일조각).
- 30) 청목계삼(靑木戒三, ?-)은 1910년 조선총독부서기관을 시작으로 14년 수산과장, 16년 상공과장, 18년 농무과장, 19년 철도국장, 20년 서무부장, 22년 전매국장, 26년 평남지사 등을 역임했다.
- 31) 그는 대만 사회에 아직 자본주의적 정신이나 상인들의 기업가적 태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일본 자본의 대만 진출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그의 비판은 비단 대만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 조선과의 연관성 속에서 나온 것이다. **“본도인(本島人)의 생활정도는 극히 저하야 상품의 매매도 심히 박리률 주장하는 고로 일본인으로는 경쟁키 불가할 쥘만 안이라 자연 본도인이 상업의 용(勇)의 지위를 점한 소이라 호노라** (밑줄은 필자 강조) (청목계삼, 『상공업상으로 관찰한 대만』, 『매일신보』, 1916.05.27, 02면)
- 32) 청목 국장은 또한 “재유(在留)한 일본인은 종래로 구주미(九州米)의 공급을 대호야더니 작년부터 조선미가 수입된 후로는 비상한 호평을 박(博)호야 이래로 미는 조선미가 안이면 불가하다오 까지호며 조선수산업도 수입이 심다호야 기룡모수산물상(基隆某水産物商)의 답을 문호 즉 연액 십오만원의 수산물을 매(賣)호하니 기전부(其全部)의 수용물(需用物)을 총계호는 실시(實時)로 거대호 줄 사호노라”라며 조선의 역할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만을 방문한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식민지 경영상에 대한 대만총독부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기보다는 대만박람회 성과 속에 은폐되고 가려진 문제점들을 관찰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이 기타의 제국주의 국가의 통치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취사하여 대만에 적용한 것처럼, 일제의 대만경영을 조선 통치의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이다.<sup>33)</sup> 공통적으로 이들은 일제가 구축해 놓은 근대적 성과를 인정하고 긍정하면서도 ‘동화’에 대한 경도를 유심히 살폈다. 이는 ‘내지연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일제의 정책적 기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는 대만과 조선의 식민경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완벽한 식민통치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었던 것이다. 이 저변에는, 동화를 통해 내외의 구분이 무색해지는 ‘상상의 공동체’를 ‘현실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던 일제와 이를 그대로 구현하고자 한 식민통치기구 행정가들의 욕망이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 3. 친일 조선인의 대만 체험:

#### 식민지 대만의 근대성과 조선의 후진성

대만시찰단의 초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인 관료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가운데는 조선인도 있었다. 이 일행에는 당시 ‘한성은행전무취체역’이었던 한상룡(韓相龍, 1880-1947)도 동석했다.<sup>34)</sup> ‘친일 예속자본가의 전형’이라 평가받는 한상룡은<sup>35)</sup> 일인관료들처

33) 손준식(외, 2007), 『식민주의와 언어』, 아름나무, 7쪽.

34) 한상룡의 시찰 체험 역시 『매일신보』에 기재되었는데 이는 조선인으로서 언론을

럼 대만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대만을 시찰하였고 그의 체험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시찰기에는 ‘대만의 사업’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은데, 이는 ‘조선 경제인에 의한 대만 체험’을 통해 대만의 식민지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성장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와 연결된다 할 수 있다.<sup>36)</sup> 사실 그의 대만시찰은 다른 시찰과 마찬가지로 다소 빠박한 일정으로 개인의 기대나 호기심을 충족하기에는 굉장한 제한이 있었는데 스스로도 시찰이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어긋나 있었다고 밝혔다.<sup>37)</sup> 그의 시찰기 가운데 그의 생각이 비교적 잘 드러난 『대만 시찰의 감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총독부 관료들에게는 언급이 적었던 부분, 즉 대만에 대비한 조선의 후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조선의 대만화’를 다소 일방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sup>38)</sup> ‘조선의 민족성’을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조선의 미래적 방향은 조선의 특수성을 모두 버리고 대만을 시급히 배워 일제에 더욱 종속되고 동화되는 길 밖에 없음

---

통해 대만 기행문을 남긴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총독부 관료들의 시찰기가 개인당 한 편씩 개재된 반면, 한상룡의 경우 매우 자세하고 방대한 내용으로 총 13회에 걸쳐 연재되었다는 점이다. 『매일신보』를 통해 무려 13회에 걸쳐 게재 된 그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을 간추려 본다면, 일제가 대만을 체험하고 온 친일 조선인의 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추정 가능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관료들의 글이 경영 주체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한상룡의 글은 비교적 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35) 한상룡은 1903년 2월 합자회사 공립한성은행으로 실무책임자 격인 우총무(右總務)에 취임한 이래로 1928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시찰 당시 한상룡은 ‘한성은행진 무취체역’으로 한성은행지배인대리 한익교(韓翼敎, 1886-?)와 동행하여 함께 공진회 참가로 약 40일간 대만을 시찰하였게 된다. 그의 시찰기는 당시 그의 신분이나 ‘사찰’의 정치적 성격상 자연스럽게 총독부의 의중을 부합해야 하는 등의 제한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식민지 조선인에 비친 대만에 대한 ‘시찰기’ 중 언론에 공개된 최초의 시찰기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 36) 한상룡의 시찰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필자는 위 기사 가운데 비교적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 기록이라 판단되는 마지막 2회에 걸쳐 연재된 『대만 소관 팔. 대만시찰의 감상』과 『대만소관 팔. 대만시찰의 감상 속(續)』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먼저 그의 대만 발전상에 대한 언급을 보자.

“산업의 발달은 여사(如斯)흔 부력을 작흐얏슬지라도 기원인은 천여의 산물이 무한하고 차수확(且收穫)이 용이함에 유함이라. 연한디 행정당무자가 열의로 산물의 개발을 장려하고 명물성무실(名物成務實)을 거해야 이용후생에 노력흔 결과에 불외(不外)흐도다. 연

순번	년월일	기사제목
1	1916.06.04	내지대만소관, 한상룡씨 답
2	1916.06.06	대만소관 이, 대만의 사업
3	1916.06.07	대만소관 이, 대만의 사업
4	1916.06.08	대만소관 이, 대만의 사업 (속)
5	1916.06.10	대만소관 이 대만의 사업 (속)
6	1916.06.13	대만소관 이, 대만의 사업 (속)
7	1916.06.14	대만소관 이, 대만의 사업 (속)
8	1916.06.15	대만소관 삼, 대만의 무역
9	1916.06.16	대만소관 사, 대만의 재정 · 대만소관 오, 대만의 풍속 인정
10	1916.06.17	대만소관 육, 대만의 생번지실황(生蕃地實況)
11	1916.06.18	대만소관 칠, 생번지실황
12	1916.06.20	대만소관 팔, 대만 시찰의 감상
13	1916.06.21	대만소관 팔, 대만 시찰의 감상 (속)

- 37) 『매일신보』, 『내지시찰소관, 한상룡씨 답』, 1916.06.04.,2면. “여의 재대만일수(在臺灣日數)는 근히 일주간의 단시일이오 대만의 개문(開門)된 기륭항(基隆港)으로 브터 철로를 일주하야 모당(沙糖)의 산지로 명이 고 흔 아후청(阿猴廳)에 지흔 연선을 시찰 함에 불과하야 답사함 여일과 기회를 부득할 뿐인이리, 대만 중(中)은 명사의 소대회(招待會)에 부(赴)하야 답화할 시마다 아조선(我朝鮮)의 소개에 노력흔 고로 친히 조사의 목적을 달 함을 못흐얏스나”
- 38) 정혜경은 “한상룡의 시찰기는 구체성이 결여되고 논리성이 부족하여 식민통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정혜경, 앞의 논문, 50쪽).

이나 대만주민은 아 조선인과 여(如)히 태타(怠惰)하고 차(且) 퇴영적임과 이(異)하니 일단이 근검역행의 미풍에 부하고 인내력과 저축심의 강함도 억우화식력(抑又貨殖力)을 증진하는 최대원인이라 하겠도다.”<sup>39)</sup>

기업가 출신인 한상룡은 자연스럽게 대만 산업의 발달에 주목하고 있다. 대만의 풍부한 산물이 부력으로 연결된 것은 일본의 노력과 더불어 대만인들의 협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인을 ‘태만’·‘퇴영’으로 대만인을 ‘근검’·‘인내’로 대비하여 후진적인 조선의 민족성을 부각시켰는데, 이는 조선이 노력해야 할 것은 당국의 식민정책에 대한 순응과 함께 일본의 국민성(민족성)을 체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동화’의 맥락과 연결된다 하겠다. 그는 특히 대만인의 저축과 화식력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데 이는 금융권을 활성화하여 조선의 경제를 일본의 자본에 더욱 예속시키려는 총독부 의중과 당시 한성은행 소속이었던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려가 결합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만은 최이(最爾) 한 일고도(一孤島)다. 연이나 인구삼백오만을 포용해야 - 물론 번계(勿論 蕃界)를 제함-”이라며 원주민을 식민지 대만의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sup>40)</sup> 이러한 인종차별주의적 언급은 대만에서의 일제 식민정책상의 동화는 사실상 한족 중심의 ‘본도인(本島人)’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며 원주민에 대한 인종적 차별의식과 정치적 제한이 비교적 엄중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일제의 대만 통치는 한족과 원주민을 구분하는 차별 구조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일제의 이념을 깊이 흡수한 한상룡에게도 번족은 한족과 엄격히 구분되는 야만, 그 자체로 제국의 국민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인에 대한 그의 부정적 인식은 자신으로부터 조선을 철저히 ‘타자화’하는 동시

39) 한상룡, 「대만소관 팔. 대만시찰의 감상」, 『매일신보』, 1916.06.20, 1면.

40) 위와 같음.

에 자신을 철저히 객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인식하는 자기 정체성의 일면과 자신의 지향하는 민족성의 방향을 보여준다 하겠다.

“대만에서는 도상에서 난취호거나 혹은 헌화구론(喧譁口論) 등을 견훤이 소하고 질서의 정연훤은 일경(一驚)을 낚았스니 조선과 여히 노변에서 취보반산(醉步蹣跚)하며 혹은 매리조효호는 왕왕독견훤과 여훤은 품성의 수양상홀제(修養上忽諸)에 부키 불가한 동시에 풍기취제상(風紀取締上)에도 일고를 요할 사이라. 개여차(蓋如此)훤은 동상발전의 국민성함양에 영향호는 바가 불심(不堪) 홀 것을 심히 우려를 불감(不堪)홀 것이오 우사(又事)는 사분(些墳)에 섭(涉)호나 사민(士民)복장은 남녀가 공히 거개흑색(學皆黑色)이오 남자는 다히 단발호얏스니 선인(鮮人)과 여히 일식을 착호고 세탁에 궁훤에 차호면 파(頗)히 경제적이오, 우단발(又斷髮)은 결발에 차호면 거지경쾌(學止輕快)호야 작채상(作菜上)의 편리도 다호다홀저라.”<sup>41)</sup>

한상룡은 조선 거리의 불결성을 조선인의 태만성과 연결하면서 당국이 서둘러 ‘국민성 함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것을 주장했고 나아가 조선인의 백의(白衣)풍습이 비경제적이며 상투나 쪽진머리 역시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부정의 논리는 조선적인 것과 근대적인(일본적인) 것이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근대적 계몽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어서 원주민 학생들이 창가를 부르는 광경을 통해 동화정책의 효과를 찬양하며 동화정책의 핵심기구인 학교 이용이 저조한 조선을 질타했다.<sup>42)</sup> 조선의 보통학교 취학률이 대만의 공학교

41) 한상룡, 「대만소관 팔, 대만 시찰의 감상 속(續)」, 『매일신보』, 1916.06.21, 1면.

42) 위와 같음. “여가 금비 번지(蕃地) 시찰에 제(際)호야 번도교육소(蕃徒教育所)를 심방하얏는디 번인생도의 남녀는 국어로써 창가를 가호고 연설을 술호는 등이 여히 활발호야 호(學)도 문명인의 자녀와 무이훤을 견호고 유익교육의 효력에 여차위대(如此偉大) 훤을 일층 감지 호얏노라.” 대만총독부는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수십 년간 같은 지역에 머무르며 원주민과 친분을 쌓도록

에 비해 낮은 것은 아직 일제가 내세운 정책에 둔감하고 나아가 문명개화에 대한 발달에 무감각한 조선인의 탓으로, 당국이 이를 더욱 철저히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43)</sup> 또한 경찰행정을 돕고 젊은 사람들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진압하는 한편 대만인의 친일 포섭 및 유희정책으로 사용한 식민지 하 집단 감시체제의 상징인 대만에서의 ‘보갑제도(保甲制度)’를 서둘러 도입하여 총독부의 경비와 경찰의 업무 부담을 덜고 “지방경찰찰보조와 풍속의 개량 등에 선용(善用)”할 것을 주장했다.<sup>44)</sup> 또 “엄격한 규율 감시 하에 취업을 강제”하는 등의 조치로 “무뢰한(無賴漢) 취체(取締) 상에 적절”히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5)</sup>

문화통치 이후 대만 시찰은 그 대상이 조선인 교원이나 관료들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고 30년대에 이르면 민간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sup>46)</sup> 이러한 양상은 대동아공영 건설 착수에 대한 대중적 환기를 위한

---

했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공학교에서는 일본 순사가 교사직을 맡게 하는 등 원주민들의 동화를 위해 노력했다.

43) 앞과 같음. “대만인의 향학심이 왕성헌 정률(程率)로서 인구에 타산(扵筭)하면 조선에는 십만이상의 생도를 견훤 터인디 전술과 여헌 상태는 문화의 발달이 지지헌 소이오, 교육의 편급은 개발상최(開發上最)의 장려를 가치 인이함이 불가하도다.”

44) 1920년대 임헌당(林獻堂) 등이 주도한 대만자치운동에서 보갑제도 폐지( 혁신)는 중요한 과제였었다. 특히 보갑연좌법칙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대만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등 그 폐해가 극심했다. 이와는 반대로 한상용은 이를 조선에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45) 위와 같음.

46) 예를 들면 1931년에는 조선건축협회, 1932년 철도국의 후원으로 ‘췌팬 투리스트 부로 조선지부’, 33년은 매일신보사 주최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만시찰단을 조직하였는데 대략 20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동아일보』에 소개된 대만시찰단 홍보 광고를 옮겨본다. “조선건축협회에서는 결빙한 산기를 리용하여 대만시찰단을 조직하고 래명 삼(十)일까지 단원을 모집중이라는데 벌써 17명에 달한다 한다. 출발은 래 십사(十四)일 오전 열(十)시 특급으로 귀착흔 삼월 일일 오전 7시 단비는 십육일자 숙식비와 귀착기선 이등으로 하야 한사람에 백칠십원으로 주최측에서 전납하기를 바라매 예정시찰지는 기릉(基隆), 대북(臺北), 고웅(高雄), 병둥(屏東), 대남(臺南), 수사(水社), 가의(嘉義), 아리산(阿里山), 대중(臺中), 북투

일종의 ‘정치적 의미를 함의한 사찰’이라 할 수 있는데, 일제는 이러한 사찰(여행)을 통해 일본 제국의 확장된 위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동아시아 지배의 당위를 보이려 했음이 추측 가능하다. 『매일신보』에 수록된 당시 ‘전북참여관’이었던 박영철(朴永喆, 1879~1939)의 시찰기는 이러한 문화통치 이후 조선인 관료의 이름으로 작성된 대만기행문이라는 점과 동시에 이후에 진행된 당시 시찰의 형태와 일정 등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준다는 특징을 보여준다.<sup>47)</sup> 한상룡과 더불어 친일조선인들의 내면 의식 및 외지(대만)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겠다.<sup>48)</sup> 이후 1930년대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박윤원(朴潤元. ?~?)<sup>49)</sup>

(北投) 등 십(十) 지방가량이라 한다.”(『대만시찰단모집』, 『동아일보』, 1931.02.09)

47) 문화통치기로 접어든 1920년 이후 대만에 대한 담론은 더욱 확대되기에 이른다. 『매일신보』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통해서도 정보가 생산되면서 그 양이 상당 부분 증가한 것이다. 『매일신보』의 대만론이 조선인의 동화의식을 촉구하거나 일제 지배의 당위성에 관점이 집중되어 있다면, 『조선일보』는 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대만의 처지를 유사한 피식민지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에 있었고 『동아일보』는 자치주의적 관점에서 대만의 자치운동에 관한 많은 기사가 작성되었다(손준식(2007), 『식민지 조선의 대만인식』, 『중국현대사연구』 34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010), 『『동아일보』(1920-1940) 기사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대만 인식』, 『중국학보』 61집, 한국중국학회).

48) 박영철의 시찰기 가운데 1~2부는 시간순대로 일정을 기록하면서 감상을 적어간 기행문 형식에 가깝고 2부 후반~3부 중반부는 대만에 대한 간략한 소개(연혁, 위치, 기후, 인구, 산물, 당국의 시설, 행정구획, 대만인의 생활)로 이어지며 3부 후반부에는 그의 감상이 들어가 있다. 평소 한문학 창작을 즐겼던 창작습관을 반영한 듯 한시 두 수가 수록 되어있다는 특징이 있다. 『매일신보』 내 박영철의 시찰기는 다음과 같다.

순번	년월일	기사제목
1	1922. 02. 17	대만시찰략기(1)
2	1922. 02. 19	대만시찰략기(2)
3	1922. 02. 21	대만시찰략기(3)

49) 박윤원(朴潤元, ?~?): 그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인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확히 생애를 고증하기에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필자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는

이 3년간(1919~1921) 대만에서 머물며 남긴 관련 기록이나<sup>50)</sup> 개성삼엄 조합장출신의 거상 손봉상(孫鳳祥, 1861~1936)과 2대 조합장이자 경학원 부제학 출신 공성학(孔聖學, 1879~1957), 그리고 그의 동생 공성구(孔聖求, ?~?)가 인삼판로 개척을 위해 총독부의 독점 위탁판매업체인 미쓰이(三井) 물산의 후원으로 대만과 홍콩을 방문한 후 남긴 기행문과 기행시가 담겨있는 『향대기람』(香臺記覽, 1931)과 같은 기록들이 있으나, 이들의 기록이 박영철이나 한상룡의 기록처럼 일제가 추구했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다고는 볼 수 없다.<sup>51)</sup>

한상룡의 대만시찰이 ‘대만권업공진회 참가’라는 공적인 측면에 강했던 것에 비해 그의 시찰은 비교적 일반 시찰의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북참여관이었던 그는 경성일보사에서 주최한 ‘대만시찰단’의 일원으로 1922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총 15일 일정의 대만시찰을 다녀왔다.<sup>52)</sup> 그의 시찰기는 한상룡의 경우와는 달리 일종의 기행문에

동아일보 의주(義州)지국 기자로서(『동아일보』1930.12.31, 4면) 이곳 의주에서 『조선소년』 발행인으로 활동했다. 『조선소년』이 언제 창간되고 폐간되었는지는 아직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출판경찰월보』에서 잡지 검열에 관한 간략한 기술을 근거로 일단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최초 검열은 1927년 9월 3일자로 검열된 1권 3호이며 가장 늦은 시기로는 1930년 02월 01일자로 검열된 제4권 제3호이다.

50) 한편 그는 귀국 후 「대유잡감(臺遊雜感)」(『개벽』 9호, 1921.), 「대만에서 생활하는 우리 형제의 상황」(『개벽』 13호, 1921.) 「대만변죽과 조선」 上·中·下(『동아일보』, 1930.12.10.~12) 등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허준아(許俊雅)(2011), 「조선작가박윤원재대작품급기대만기행석문(朝鮮作家朴潤元在臺作品及其臺灣紀行析論)」, 『성공중앙학보(成大中文學報)』, 제이십사기(第三十四期), 국립성공대학중문계(國立成功大學中文系), 21-62쪽).

51) 약 40일간의 일정 중 대만에서 약 10일간 머문 이들은 대만의 각종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현지 미쓰이 물산 관계자와 함께 홍삼 판매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한문으로 작성된 이들의 기행문은 인삼과 미쓰이의 물산의 관계로 한 대만과의 교류와 함께 조선총독부의 동아시아 인삼 판매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52) 어떤 방식으로 시찰단이 모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 일행이 총 10명이며 각도(各道)의 주요 관리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매일신보』,

가까워 묘사나 설명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여정의 궤적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노골적으로 일제를 찬양하는 면모도 상당히 감소한 측면이 보인다.<sup>53)</sup> 이 시찰단에 대한 대만 언론의 관심 역시 대만공진회 참가 당시에 비하면 비교적 많았음을 상기해보면 당시 조선에 대한 대만의 관심이 점차 상승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sup>54)</sup> 실제로 대만 내 조선인의 이주 역시 문화통치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18년 당시 20명에 불과했던 대만 거주 조선인은 21년 145명, 26년 353명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sup>55)</sup>

박영철 역시 한상룡과 유사하게 대만에 약 1주가량을 머물렀는데 한상룡과 마찬가지로 그 일정이 촉박하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sup>56)</sup> 시찰은 각 지역관료와 민중들의 환대와 함께 주요시설 시찰 및 식민통치 기구의 직원들과의 좌담회가 주를 이뤘고 주요 시찰지로는 중요 식민통

1922.01.07, 4면).

53) 박영철의 시찰기를 종합해보면 시찰단은 총 16명으로 22년 1월 3일에 출발하여 17일에 돌아왔으나 한상룡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대만에 머문 것은 일주일가량에 불과했고 그리 만족스러운 여행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가 다녀간 도시를 중심으로 그의 일정을 정리해보면 경성(京城)-문사(門司)-기륭(基隆)-대북(臺北)-고웅(高雄)-병동(屏東)-대남(臺南)-신시(新市)-신북(新化)-대중(臺中)-대북(臺北)-도원(桃園)-기륭(基隆)등의 도시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54) 『대만일일신보』의 해당기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京城日報主催の朝鮮視察團來る基隆官民の歡迎を受け臺北に著同勢十六名』(1922.01.08, 7면), 『視察團歡迎會』(1922.01.11, 6면), 『視察團之動靜』(1922.01.12, 6면), 『朝鮮視察團二時十分臺北出發歸鮮』(1922.01.13, 6면), 『朝鮮視察團の歡迎會鐵道ホテルにて』(1922.01.14, 2면), 『視察團の出發日程を終了して歸國』(1922.01.15, 6면), 『朝鮮視察團出發』(1922.01.15, 6면).

55) 김승일, 앞의 논문, 287-288쪽.

56) 『대만시찰라기(1)』, 『매일신보』, 1922. 02. 17, 1면. “대정십일년일월에 경성일보사 주최로 대만시찰단이 조직되니 일행이 공 십육인이라. 여가 단원에 참가하여 삼일에 경성 출발하여 십칠일에 귀착하니 왕반이 공 육십일이라. 당지 시찰한 일자는 일주간에 불과하니 충분흔 관람은 득할 여유가 무하거니와 관규(管窺)의 일반을 소개고져 하여 개략기술하노라.”

치기구 학교나 정돈된 시장, 식물원, 동물원 등 근대적 시설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시찰기에는 일제의 근대적 성과를 기본으로 하는 식민지배의 당위성과 통치 성과 찬양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데 박영철 역시 한상룡과 유사하게 대만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및 편견의식을 보여주면서도 이들이 문명으로 동화되고 있는 양상을 서술하였다.

“대저 일반 대만인은 이백육십년전에 광둥 복건으로 이래(移來)한 민족이오, 번인은 재래한 만종이라 성질이 참독하여 동족외의 인은 봉족학살(逢則虐殺)하여 수급을 헌벽(軒壁)에 열치하여 수급으로 다획한 자가 자이위호걸(自以爲豪俊)하는 악성이 유한 족류인 고로 당국에서 백만무순(百般撫循)하여 귀화자는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출입을 경계하여 흉악을 사행치 못하게 하니 귀화자 다하여 변계가 점차 축소되더라.”<sup>57)</sup>

박영철은 대만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노출하며 번인은 동화된 대만인과 구별되는 폭악무도한 반문명적 존재로 여기며 이들을 대립관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8)</sup> 즉 원주민은 문명의 세례를 입은 대만인과 경계가 분명한 자로 일제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고 그럴 수도 없는 비문명인이었던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자격 여부는 그저 단순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가 아니라 ‘동화’ 여부에 달렸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하겠다. 하지만 일제의 노력에 의해 이러한 대만 원주민조차 귀화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동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실 일제 자체도 대만원주민에 대한 편견이 가득하여 이들은 동물적 폭력성을 가진 야만족에 불과

57) 한상룡, 『대만시찰략기(3)』, 『매일신보』, 1922. 02. 21, 01면.

58) 조선의 경우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인종적 문제가 있었다면 대만은 일본인과 대만인 그리고 다양한 원주민에 이르는, 비교적 다차원적인 인종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특히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달랐기에 대만에서의 일제 ‘동화’ 정책은 조선보다 더욱 철저하고 섬세해야 했다.

하며 식민통치와 교화의 성과를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인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다. 『매일신보』에 따르면 대만총독부가 이들을 잘 교화하여 경찰견의 대리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여길 정도였다고 한다.<sup>59)</sup> 하지만 원주민의 대한 포악성, 비문명성은 역으로 대만총독부의 동화정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박영철 역시 고산에 사는 대만 원주민을 야만과 비문명의 상징으로 보면서도 대만총독부의 노력으로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야생의 변족마저 문명화로 진입하고 있다며 일제의 동화정책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한편 박영철 역시 대만의 근대화는 ‘당국의 헌신에 기초한 문명의 시행’이라는 관점을 보여주며 이는 제국 일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일이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일제의 통치는 일본 제국을 위한 것이 아닌 대만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 하며 이들의 통치는 가치 특수한 성격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연결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sup>60)</sup> 당국의 제국주의적 이념을 은폐하면서 대만인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조선도 다르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당국의 노력만큼 현지인의 협력의지와 일제정책에 성실히 순응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59) 『경찰견의 대(代)로 생번』, 『매일신보』, 1916. 04. 13, 03면, 부제는 “고양이는 명함도 못드러울 생번”. 기사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요스이 경찰견이라는 것이 있스나 그리 신통치 못헌터인즉 덕만의 생번을 양성호야 탐녕으로 부리는 것이 엇더할실 호는 의문이 요스이 대만총독부에 잇다더라”

60) 박영철, 『대만시찰략기(3)』, 『매일신보』, 1922. 02. 21, 01면. “당국은 대만 영유 이래로 제설비시설에 진력하여 사법은 인민(人民)의 생명재산을 보전케하며 토지조사가 완료하여 인민의 소유권리가 확정하며 군대와 경찰이 인민을 안도케 하며 총독부의 원(醫院)을 각 요지에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며 향만하천과 철도교량도로를 수축 시설하여 교통을 편리케하며 우편전신이 통신을 경쾌케하며 산업을 장려하여 민복을 증진케하며 시가공원과 관아학교를 광속히 하여 위관(偉觀)을 정(淸)케하며 사사(社寺)와 관원(館園)을 설치하여 경신박물관(敬神博物)의 념을 장케하야.”

“비록 당국의 시설이 득당홀지라도 개인개인이 근면치 아니하면 도저히 안전호 생활을 득하기 난하리니 더욱히 조선은 천혜가 부족 한 지방이라 별선(別般)이 교육과 산업에 장려하며 근검과 저축의 주의하여 실력을 양성홀지니 구설로만 고담준론하고 학식이 엄서 공복공복(空腹空腹)이오 실력업서 역수공권(亦手空拳)으로 안전호 생활을 망(望)하면 경건대 목을 연하여 어를 구호와 여한지라 엇지 가탄치 아니하리오.”<sup>61)</sup>

한상룡과 마찬가지로 강제취업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이 제도를 조선에 도입하여 모든 조선 청년이 ‘근면성실’히 일하게 해야 한다는 한상룡의 결론처럼 ‘근면한 국민 만들기’에 관심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역시 대만의 발전이 당국의 헌신과 함께 대만인의 협력에 기반을 둔 것임을 드러내며, 조선인의 일제협력이 장래 조선의 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밀접한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만약 조선에 이런 노력이 없다면 조선의 미래는 원주민을 안고 있는 대만보다 더 후진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우회적으로 던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경사회의 특성으로 대만처럼 당장 자본화될 자원들이 비교적 적은 조선은 대만보다 더욱 철저히 일제 통치에 협력하면서 ‘교육과 산업의 장려, 근검과 저축’ 등에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없는 논의들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우매한 행동이라 강조하며 시찰기를 마쳤다. 결론적으로, ‘대만을 본받아 공리공담이 아닌 실질적 근대화 및 일본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조선인의 시찰기는 공통적으로 현재 대만의 발전은 당국의 헌신과 대만인들의 협력과 순응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대만이라는 검증된 식민지를 본받아 더욱 분발하여 조선적인 것을 과

61) 위와 같음.

감히 벗어던지고 더욱 철저히 일본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물질적인 측면과 함께 정신적인 측면을 함께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식민지 조선의 결핍과 부재’는 식민통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조선의 민족성의 상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만과 같은 모범적 식민지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조선적인 외형과 내면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기저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대만시찰은 ‘대만’ 그 자체의 발견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이라는 타자는 ‘타자 그 자체’가 아니라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자기 내면에서 동경하고 있던 ‘일본적 근대성’과 결합되어 발견된 것이다. 이들에게 식민지 대만의 변화된 면모는 ‘근대에 대한 우월함과 동경’에 대한 자기욕망의 발견이자, 애써 부정하고자 했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기내면의 ‘결핍과 열등’에 대한 발견이었다. 두 사람의 시찰기는 다소 다른 경향의 글쓰기 면모를 보이곤 있지만, ‘대만 속의 대만’이 아닌 ‘대만 속의 일본’을 근거로 ‘일본을 조선 내부에 다시 요청’하는 공통의 내적 논리를 보여준다 하겠다.<sup>62)</sup>

#### 4. 결론

일제는 시찰이나 여행 등의 ‘관광’을 문화통치와 동화이데올로기 창출

62) 위와 같음. 1월 7일 타이페이에 도착한 그는 양일간 ‘총독부, 장관관저, 대만일일신문사, 중앙연구소, 중앙시험소, 상품진열장, 전매국, 수원지, 농사시험장을 시찰하고 일환여관(日丸旅館)에 투숙하고 익팔일오전구시부터 신기가지장(新起街市場), 지서소학교(地西小學敎), 대도정(大稻埕), 시장제일공립학교(市場第一公立學校), 대만신사(북백천신궁위(北白天宮神位)), 동물원, 식물관’ 등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한편 12일에 다시 돌아온 다시 돌아온 그는 다시금 총독부에 들러 중요한 대만의 식민통치 기구들을 다시금 참관하는데 ‘총독부 식산국, 전력회사, 대북여자고등보통학교, 대만은행, 등을 방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박영철, 『대만시찰략기(2)』, 『매일신보』, 1922.02.19, 1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당국은 조선인의 ‘내지’ 시찰을 통해 조선인 스스로 ‘자기분발의 다짐·열등의식·자기비하’와 같은 감정을 갖게 만들었고 만주를 통해 무너진 중화의 초라함과 후진성을 실감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지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시켜가며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제통치의 당위성을 내면화하게 만들었다.<sup>63)</sup> 조선총독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만시찰은 1916년 식민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개최된 ‘박람회’ 이후로 보인다. 20년대에 이르면 친일성향의 조선인들의 대만시찰 또한 이루어졌지만 제등실(齋藤實) 총독 이후 시작된 ‘내지시찰단’처럼 큰 규모나 지속적인 성격의 시찰은 아니었다. 그리고 대만에서의 조선시찰 역시 20년대를 전후로 발견되는데, 두 식민지 간의 시찰은 식민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관료와 사업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조선과 대만은 식민지라는 자기 제한적 상황 속에서 ‘내지연장주의’라는 확장된 제국주의 동화정책이 진행된 19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내지연장주의의 기치 하에 식민경영의 경험과 유산을 공유하고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일제의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64)</sup>

‘전 세계 식민경영상의 모범적 전례’라 자평하며 화려하게 개막한 1916년 대만박람회 참석차 대만을 둘러본 조선총독부 관료들에게 대만은 일제의 식민정책의 성과를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63) 박찬승(2006),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일본시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9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3~248쪽. 물론 ‘내지’가 아닌 ‘식민지 교과서로서의 대만’은 내지시찰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시찰을 다녀온 이들은 공통적으로 ‘식민지 경영상의 안정과 제국판도의 확보’라는 제국주의 확장과 동화담론에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64) ‘내지’ 경험을 통해 조선의 열등과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만주체험을 통해 중화문명의 전근대적 면모와 ‘반전통’의 당위를 보았다면, 조선과 같은 처지의 ‘식민지 대만’은 이 둘이 모두 발견되는 공간이었다. 다시 말하면 식민통치의 성과와 미개척의 분야의 원시성이 극명히 대조되는, 그래서 ‘식민정책의 당위성과 그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식민동화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대만은 ‘완성된 식민통치의 교과서’라기 보다 쓰여지고 있는, 더욱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교과서로 인식되었다. 대만 내부에 보이는 여러 설비와 시설, 예를 들어 위엄을 자랑하는 식민 통치기구의 외양, 양호한 도시설비와 정돈된 거리의 화려한 풍경 등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식민지 조선의 ‘식민지적 결핍과 부재’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러한 발견을 통해 조선의 ‘불충분한 현재’를 직시했지만 대만의 식민성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조선통치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제국일본의 확대를 동시에 모색했다. 이들에게 대만시찰은 궁극적으로 두 지역 모두 더 완벽한 ‘일본 식민지의 모범 사례’로 만드는 한편 보다 완전한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일본제국의 확장에 성심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한편 대만을 찾은 조선인들은 기본적으로 친일적 성향이 다분한 정체성의 소유자들이 많았다. 문화통치기를 전후로 시작된 대만시찰에 참여한 대표적 인사인 한상룡과 박영철은 그들의 대만체험을 『매일신보』를 통해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대만 시찰이 아닌 ‘내지인’으로의 정체성을 갖고 대만을 보고 또 조선을 발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야만과 후진의 상징으로만 여겼던 대만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과 경탄을 보내며 일본의 식민경영을 찬양했다. 그 속에서 이들은 일제의 근대적 힘과 우월 그리고 후진적 야만이 겹쳐진 대만을 발견하게 된다. 시찰에서 이들이 본 것은 대만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제의 힘이 닿아 개조된 대만과 그에 순응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일본인 같은 대만인들, 그리고 일제의 통치를 방해한 채 미개함을 유지하고 있는 야만적 원주민이었다. 그들에게 원주민들은 그저 반드시 동화되어야 함에도 아직 그렇지 않은 미개한 집단으로 이미 대만인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존재였다. 이들은 ‘대만 속의 일제’를 보면서 ‘조선 속에 부재하는 일제’의 면모를 재발견했다. 이들은 조선에서의 ‘식민지적

결핍과 부재'의 이유를 적극적인 협력의 부재와 전근대적인 '조선적인 것'의 잔존에서 찾았다. 근대화된 대만인에 비해, 조선인은 여전히 태만하고 게으르며 백의나 상투와 같은 전근대적 부정적 유산에 갇혀있는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사람들로 환기된다. 이들은 일본당국의 노력과 '근면, 성실, 저축' 등과 같은 일제가 내세운 국민성을 수용한 대만 민중의 노력이 조선인의 각성으로 재현되길 기대했다.

식민지 조선에 비친 식민지 대만의 모습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 재발견되는 조선, 이는 '일본'과 '만주'에 집중되어 있는 조선(인)의 외지인식에 보다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겠다. 기타의 국내 언론 및 잡지를 통해 소개된 대만시찰기(기행문), 그리고 대만총독부의 조선시찰에 관한 기록이나 대만 현지 매체에 수록된 작품들에 관한 언급은 추후 과제로 미뤄두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매일신보(每日申報)』, 『대만일일신보(臺灣日日新報)』.

### 2. 2차 자료

가지명(柯志明, 2008), 문명기(역), 『식민지 시대 대만은 발전했는가』, 일조각.  
김권영·손준식·이옥순(2007), 『식민주의와 언어』, 아름나무.

저완요(周婉瑋, 2003), 손준식 외(역),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정재정(1999), 『일체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출판부.

최원식(외, 2012), 『대만을 보는 눈』, 창비.

김경일(1993), 『한상룡: 친일 예속자본가의 전형』, 『한국학보』 71집, 일지사.  
손준식(2002),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아세아문화』 18호,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김승일(2004), 『대만 한교의 역사적 천이 상황과 귀환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28집, 한국근현대사학회.

하세봉(2004), 『식민지권력의 두 가지 얼굴』, 『지역사와 경계』 51집, 경남사학회.  
박찬승(2006),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일본시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9권 1  
호, 역사문화학회.

문명기(2009), 『대만·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44집, 중국근현대사학회.

조성운(2009),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관광정책』, 『동아시아문화연구』 44집, 한  
양대동아시아문화연구소.

정준영(2011), 『식민지 교육정책의 원점』, 『정신문화연구』 34권 2호, 정신문화  
연구원.

정혜경(2012), 『식민지 시기 조선 사회의 외지 인식』, 『한일민족문제연구』 22

권, 한일민족문제학회.

원류태만관(遠流台灣館)(편, 2000), 『태만사소사전(台灣史小事典)』, 대북(台北): 원류출판공사(遠流出版公司).

말광혼야(末光欣也)(2012), 유문보(劉文甫) 외(역), 『일본통치시대적대만(日本統治時代的臺灣)』, 대북(台北): 치량출판사유한공사(致良出版社有限公司).

장효민(張曉旻)외, 2012), 『간불견적식민변록(看不見的植民邊緣)』, 대북(台北): 옥산사(玉山社).

허준아(許俊雅)(2011), 『조선작가박윤원재대작품급기대만기행석론(朝鮮作家朴潤元在臺作品及其臺灣紀行析論)』, 『성공중문학보(成大中文學報)』 제24기, 국립성공대학중문계(國立成功大學中文系).

Kotobank, 朝日新聞社, 2013.04.11. <http://kotobank.jp>.

臺灣總督府職員錄系統, 臺灣史研究所, 2013.04.11. <http://who.ith.sinica.edu.tw/mpView.actio>.

원고 접수일: 2013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3년 5월 30일

계재 확정일: 2013년 5월 30일

ABSTRACT

---

## Joseon and Her Perception of the Reality of Taiwa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Inspection

Han, Gilro

The major place for inspection (sightseeing) for Joseon peopl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The mainland, Japan’. Parties joining in inspection visits focused on strong ties with Japan and felt a sense of belonging for ‘Japanese things’ rather than ‘Korean things.’ While touring, they discovered Japan and became imprinted with the power and status of Japan. In 1920, a new place of inspection emerged which was ‘Colonized Taiwan.’ To show off the colonization model of Japan that was Taiwan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held a fair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administration in 1916. With this event, the Koreans began to inspect Taiwan in earnest. In the cultural governance era, the inspectorate consisted of Japanese senior government officers and some Koreans who cooperated with them. The top officers i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reviewed the performances of Taiwan critically, which was 15 years ahead of Joseon, and examined the feasibility of colonization in Joseon based on these accomplishments. They checked the superiority of the colonized countries

and tried to find methods of management in the Colonial Era, to seek ways of smoothly assimilating the Koreans into Japan. On the other hand, the Koreans in the inspection team had similar identities with the Japanese but they were eager to be Japanized more than anyone else. In addition, they compared the fulfillment of Taiwan with Korea's deficiency and inferiority, and stressed that the Joseon which lagged behind had to learn from Taiwan. They considered that 'their tradition' was the reason of the absence of the Japanese cultures that Taiwan had, and agreed with assimilation and enlightenment. In their inspection reports, the official and personal reviews were mixed. In writing reports, the Japanese concentrated on the assimilation of the colonized countries and Japanese imperialism represented by 'the Mainland Extension Policy'. On the contrary, Korean inspectors tried to stress the importance of Japanese ruling for modern enlightenment as well as the appropriateness of assimilation, 'expression of cooperation' and 'logics of self-denial'. For Japan, both Korea and Taiwan were 'the incomplete examples of colonization' and the places where the experiences in each country could be shared to expand Japanese imperialism.

